

초반 세몰이... '내친김에 선두까지'



곽도규 장현식 전상현 정해영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주중 원정 kt·홈 삼성 6연전...승수쌍기 나선다

이우성·박찬호 공격 선봉장 "주포 나성범 공백 없다" 평균자책점 2.38 '불펜의 힘', 초반 팀 상승세 이끌어



시즌 초반 상승세를 타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선두 탈환에 시동을 건다.

KIA는 지난주 4승 1패로 한화에 이어 단독 2위를 달리고 있다.

주중 롯데전에서 2승을 올렸고, 두산과의 주말 3연전은 워닝시리즈를 거뒀다.

'주포' 나성범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가운데 초반 스타트를 순조롭게 끊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상대 전적에서 4승12패로 유독 두산에 약한 모습을 보였던 KIA는 탄탄한 불펜 운영이 인상적이었다.

두산과의 1차전은 그야말로 필승조의 철벽 투가 돋보였다. 장현식, 임기영, 곽도규, 최지민, 전상현, 정해영으로 이어지는 불펜진은 5회부터 9회까지 단 1안타만 허용, 무실점으로 두산 타선을 완벽히 무력화시켰다. 워닝시리즈를 완성한 3차전도 7명의 불펜 투수를 등판시키는 '발매 야구'로 두산의 추격을 지켰다.

시즌 초반 KIA의 상승세는 불펜의 강력함이 원동력이다.

선발진의 평균자책점은 3.26으로 3위지만, 불펜의 평균자책점은 2.38로 10개 구단 중 1위다.

개막전부터 나선 곽도규가 4경기 4삼진 무실

점을 기록하고 있고, 전상현(4경기 3삼진 무실점)과 장현식(3경기 3삼진 무실점), 최지민(4경기 3삼진 1실점)도 제몫을 다하고 있다.

마무리 정해영은 3경기 4삼진 무실점으로 3세이브를 기록 중이다.

다만 불펜투수 임기영이 부상으로 당분간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것은 변수로 작용한다.

임기영은 지난달 31일 불펜 파칭을 하다가 왼쪽 옆구리에 불편함을 호소해, 1일 정밀검사에서 왼쪽 내복근 미세 손상 진단이 나왔다.

임기영은 회복에 집중하면서 일주일 뒤 재검진할 예정이다.

타선에선 팀 타율(0.284)이 전체 4위지만, 타율 10점에 들어있는 이우성(0.409)과 박찬호(0.375)가 공격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최고참 김선빈도 찬스 때마다 결정타를 날리며, 득점권 타율 부문 리그 전체 1위에 올라있다.

KIA는 2일부터 kt와 원정 3연전을 치른다. 첫 경기에서 '토종 에이스' 양현종과 '핵 잡수함' 고영표가 선발 맞대결을 펼친다.

지난해 준우승팀 kt는 현재 1승 7패로 최하위권에 처져있다.

올 시즌 초반 kt 투수진 평균 자책점도 8.66으로 10개 구단 중 꼴찌다.

마운드가 강한 KIA가 초반부터 타선이 터져

프로야구 팀별 순위 <1일 현재>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한화	7	1	0	0.875	0
2	KIA	5	1	0	0.833	1
3	NC	5	2	0	0.714	1.5
4	SSG	5	3	0	0.625	2
5	LG	4	3	1	0.571	2.5
6	두산	4	4	0	0.500	3
7	키움	2	4	0	0.333	4
8	삼성	2	5	1	0.286	4.5
9	롯데	1	6	0	0.143	5.5
10	kt	1	7	0	0.125	6

준다면 승부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kt는 도루저지율(16.7%)도 낮은 편이다. 박찬호, 김도영 등 빠른 발을 무기로 공략해 볼 수 있다.

KIA의 주말 홈 3연전 상대인 삼성도 시즌 초반 부진하다. 삼성은 2승 1무 5패로 현재 8위에 랭크돼 있다. 개막 2연승 이후 내리 5연패했다.

팀 타율은 0.238로 10개 구단 중 최하위다. 평균자책점도 6.10로 kt다음으로 높다.

KIA가 승수를 쌓을 수 있는 좋은 한 주다. 물론 방심은 금물이다.

4월에는 5강 싸움에서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각 팀들의 총력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올 시즌 각 구단의 전력이 상향 평준화된 만큼 순위에서 미끄러지면 다시 상위권으로 오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KIA가 이번주 상승세를 이어가며, 초반 레이스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주홍철기자



제26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서구청 선수단이 박광현 감독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구청 제공>

'한술밥 대결' 최은숙 '金'·강영미 '銀'

서구청 펜싱, 실업연맹회장배 금·은 4·동 1개 획득

광주 서구청 펜싱팀이 제26회 한국 실업펜싱연맹회장배에서 '메달 잔치'를 받았다.

서구청 펜싱팀은 지난달 28-31일 전남 동백체육관에서 열린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여자 에페 개인전에서는 최은숙과 강영미가 '한술밥 대결'을 펼쳐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눠 가졌다.

최은숙은 1회전 부전승, 16강 강원도 최은숙(15-3 승), 준결승 강원도 최은숙(12-10)을 연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최은숙은 결승서 팀 동료인 국가대표 강영미를 15-1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은숙과 강영미는 허다정·노선경과 호흡을 맞춘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합작했다.

이정환과 김대은은 남자 에페 개인전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광현 서구청 펜싱감독은 "남녀 선수가 모두 집중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내줘 기쁘다"며 "다음 대회에서는 개인전 뿐 아니라 단체전에서도 우승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숙은 1회전 부전승, 16강 강원도 최은숙(14-13 승), 8강 계룡시청 이지영(14-13 승), 준결승 화성시청 신현아(9-8)를 차례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강영미도 1회전 부전승, 16강 강원도 최은숙(14-13 승), 8강 경기도청 민

지원(15-3 승), 준결승 강원도 최은숙(12-10)을 연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최은숙은 결승서 팀 동료인 국가대표 강영미를 15-1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은숙과 강영미는 허다정·노선경과 호흡을 맞춘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합작했다.

이정환과 김대은은 남자 에페 개인전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광현 서구청 펜싱감독은 "남녀 선수가 모두 집중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내줘 기쁘다"며 "다음 대회에서는 개인전 뿐 아니라 단체전에서도 우승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숙은 1회전 부전승, 16강 강원도 최은숙(14-13 승), 8강 경기도청 민

지원(15-3 승), 준결승 강원도 최은숙(12-10)을 연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최은숙은 결승서 팀 동료인 국가대표 강영미를 15-1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은숙과 강영미는 허다정·노선경과 호흡을 맞춘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합작했다.

이정환과 김대은은 남자 에페 개인전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광현 서구청 펜싱감독은 "남녀 선수가 모두 집중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내줘 기쁘다"며 "다음 대회에서는 개인전 뿐 아니라 단체전에서도 우승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하성도 마수걸이 대포 '망'



샌디에이고의 김하성이 1일 열린 샌프란시스코와의 홈경기에서 2회말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스리런 홈런을 터뜨린 후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와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김하성의 올 시즌 6번째 경기 만에 터진 마수걸이 홈런이자 MLB 개인 통산 37번째 홈런이다. 이날 김하성의 스리런 포를 앞세운 샌디에이고는 13대4로 승리하며 샌프란시스코와의 4연전을 2승 2패로 마쳤다. /AFP=연합뉴스

광주FC, 인천 잡고 분위기 반전 '시동'

내일 홈맞대결... '전열 재정비' 연패 탈출 호기로 키 플레이어 김진호·가브리엘 발끝 관전포인트



K리그 광주FC가 인천 유나이티드를 홈으로 불러들여 첫 주중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오는 3일 오후 7시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4 5라운드 경기에서 인천유나이티드와 맞붙는다.

지난달 31일 대구와의 '달빛 터비'에서 역전패를 당한 광주는 또 다른 라이벌인 인천유나이티드를 제물 삼아 다시 선두권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는 지난 시즌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5대0 대승을 거둔 좋은 추억이 있다.

최근 10경기 전적도 광주가 5승 3무 2패로 우위에 있고, 홈경기 전적만 보면, 2015년 이후 단 한차례만 졌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지난해 10월 파이널 라운드에서 인천과 맞붙은

광주는 로테이션 멤버로 나온 인천에 불의의 일격을 당하며 0대2 패한 바 있다.

빠른 역습을 주 무기로 하는 인천과의 대결에선 광주의 방패가 될 원백 김진호가 키 플레이어가 될 전망이다.

올 시즌 강원에서 이적하자마자 주전급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진호는 최근 이정호 감독으로부터 차기 국가대표급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화려한 개인기를 앞세운 빠르고 저돌적인 돌파가 주특기다.

상대 수비에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는 가브리엘의 활약도 관전포인트다. 가브리엘과 호흡을 맞출 이희균과 이건희가 득점 기회를 잘 살린다면 대승을 노려볼 수도 있다.

최근 3경기에서 1승 2무를 기록 중인 인천은 광주 원정에서 그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각오다.

외국인 공격 듀오 무고사와 제르소



광주FC 공격의 핵심 가브리엘이 지난달 31일 열린 대구FC와의 경기에서 상대수비로부터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를 앞세워 특유의 빠르고 효율적인 축구로 광주의 골문을 두드릴 계획이다. 이들의 빠른 역습을 뒷받침하는 백스리의 중심 요니치는 찰물 수비로 광주 공격의 예봉을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연패를 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잡

아야 할 인천과의 2라운드 경기. 상대의 5백 수비에 연속 일격을 당한 이정호 감독이 과연 어떤 선수를 새로 투입할지, 인천의 빠른 역습 축구에 맞설 광주만의 대응 전술이 무엇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희중기자

전남장애인체육회, 장애인배구 심판 강습회

오는 13-14일, 50명 대상

전남장애인체육회는 오는 13-14일 목포국제체육센터와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 대비 배구 심판강습회를 개최한다.

배구 심판강습회는 오는 5월14-17일 전남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을 앞두고 장애인배구 종별인 인도어 입식배구와 좌식배구 경기규칙 및 실기교육에 대해 강습한다. 이번 배구 심판강습회 참여 희망 배구인은 대한장애인배구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50명이다. 김은래 전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배구 심판강습회를 통해 공정한 경기 운영을 도모하겠다"며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경험을 살려 학생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이번 배구 심판강습회 참여 희망 배구인은 대한장애인배구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50명이다.

김은래 전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배구 심판강습회를 통해 공정한 경기 운영을 도모하겠다"며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경험을 살려 학생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